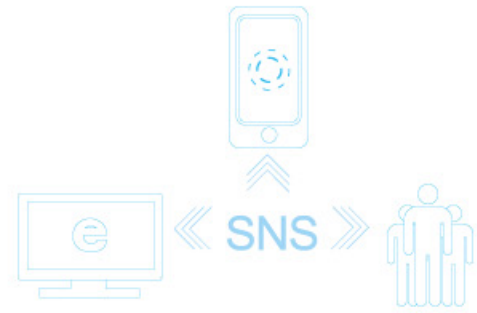


뉴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당신의 이야기

항인실 | SK마케팅앤컴퍼니 Comm. Insight Group 플래너
Insil.hwang@sk.com



식을 줄 모르는 스마트기기의 열기

스마트폰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. 단순 보유율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메신저 서비스와 SNS의 활용도가 2010년 대비 각각 49%와 28% 증가했다. 태블릿PC는 낮은 보유율에도 불구하고 비이용자들의 81%가 구매 의향을 보일 정도로 꼭 필요한 기기로 여겨지고 있으며,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모두 보유한 사람들 중에 63%가 두 기기를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. 스마트TV는 설문자 대다수가 신기하다고 응답했지만, 꼭 필요한 제품인지는 모르겠다는 의견도 과반수를 넘어 스마트TV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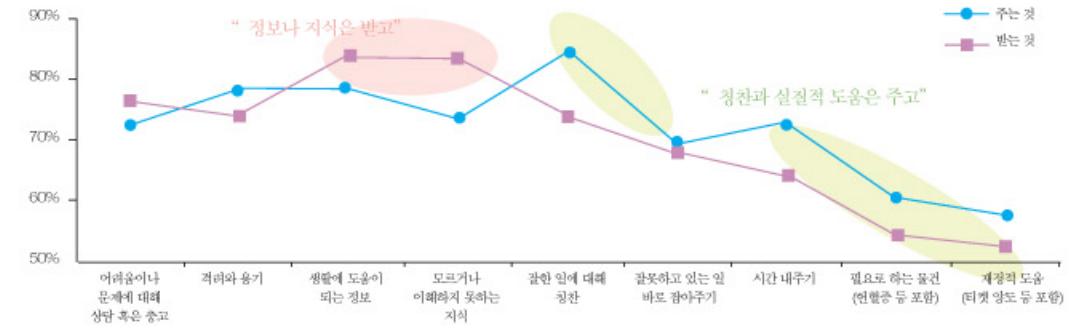
SNS가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온다?

SNS안에서는 이질적인 사람들과도 쉽게 관계를 맺고,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. 그러나 SNS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

주로 듣는다'는 응답이 64%에 달했으며, SNS 이용자 중 58%가 나와 비슷한 가치관, 연령, 교육수준의 SNS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. 즉 나와 동질적인 의견이 강화, 확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'관계의 동질화 현상'이 나타나고 있다. '소통'과 '다양성 확대'를 표방하는 SNS지만, 정작 SNS에서는 나와 같은 의견만 나누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.

뉴미디어를 통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 맺음 - 호혜적 인간의 출현
사람들은 SNS를 통해 '지식과 정보', '감정적 위로와 격려', '서로에 대한 평가', '재정적 도움'을 받고 있다. 또한 SNS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(57%)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SNS에서 도움을 베풀겠다고 응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다른 사람의 잘한 일을 칭찬하고, 시간을 내주는 등의 정서적 도움'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, 생활정보나 지식 같은 '정보적 도움'은 주로 받는 것으로

SNS에서 무엇을 주고 받는가?



나타났다.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인간유형이라 할 수 있는 '호혜적 인간'의 공유행위는 개인이 개인을 넘어 집단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.

사회 참여에의 변화 - 정치 촉매제 SNS, 2012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

SNS는 사람들의 정치·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(45%), 사회 현안에 대한 자기 의견 표출을 용이하게 만든다(56%). 또한 SNS 이용 후 행동적 정치 참여에 변화가 생긴 사람의 64%가 투표 참여 경험이 늘어났다고 응답해 향후 SNS가 그 이상의 행동적 변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정치효능감¹⁾은 남자, 20대, 고학력자, 페이스북 이용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, 특히 20대는 민주주의' 실현에 대한 믿음이, 40대에서는 '생활밀착형' 변화에 대한 믿음이 높았다. 또한 지역별로는 강남과 분당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믿음이 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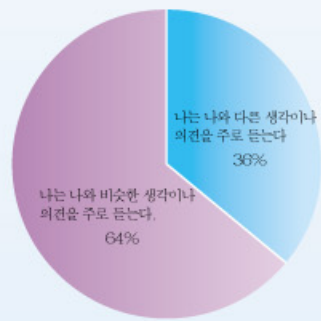
큰 것으로 나타나 올 총선에서 이들 지역주민들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.

뉴미디어 계속 변화 발전중

SK마케팅앤컴퍼니 Communication Insight Group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Trend Train을 발간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. 뉴미디어는 보다 열린 세상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문턱을 낮추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. 이전에는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했던 일들이 스마트폰의 터치 몇 번으로 가능한 세상이 되었고, 이러한 가능성은 단순한 개인이 집단이 되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으로 연결된다. 그러나 양날의 검과 같이 뉴미디어가 관계의 동질화와 거리끼리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.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있는 2012년, 뉴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주목해봄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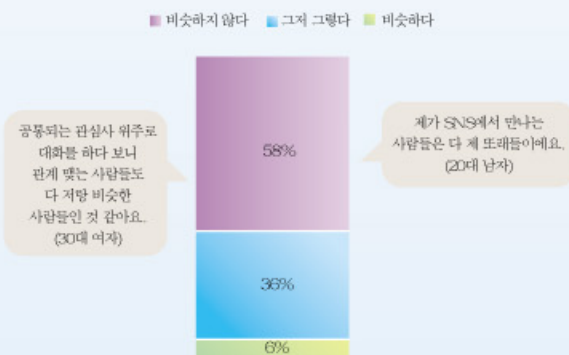
주1)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행위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신념

Q. SNS에서 당신은 어떤 성격의 의견을 주로 듣습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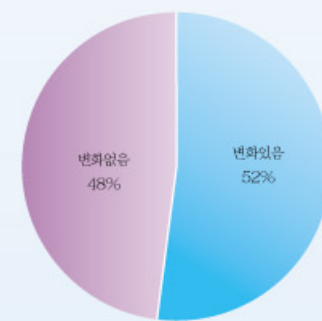
Base : 2011 SK M&C SNS 이용실태 조사 (n=4260) / unit : % / 단수응답

Q. 당신의 SNS 친구들은 당신과 얼마나 비슷합니까?



Base : SNS이용자(n=742) / unit : 3점 척도 % / 단수응답

Q. SNS 사용 후 행동적 정치참여 변화가 있습니까?



출처 : SNS 이용자 정치참여변화 조사 (n=5361) / unit : % / 단수응답

Q. SNS 사용 후 전보다 늘어난 정치참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?



출처 : SNS 이용자 정치참여변화 조사 행동 변화 경험 (n=2814) / unit : % / 복수응답